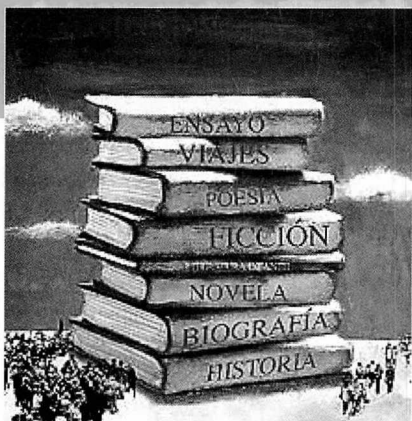


수수께끼 같은 매력과 끝없는 유혹 넘치는 국제도서전

전세계 출판인의 축제 북페어 돌아보기

정 창 | 번역가



사진은 일간지 《엘 피이스》에 실린 페르난도 비센테의 삽화로, 책을 구경하고자 도서전으로 몰려드는 독자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해마다 지구촌에는 수많은 북페어가 열린다. 북페어에 대해 작가 알베르토 망겔은 “수수께끼 같은 매력과 끝없는 유혹이 넘치는 곳”이라고 묘사한다. 그의 목소리를 빌자면, 이 세상에

는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행사를 치르는 보고타 북페어가 있는가 하면, 열대지방의 꽃처럼 은밀하게 밤에 열려 아침에 닫는 조용한 퍼스의 북페어가 있고, 뱀부처럼 등산에 관한 책들만 전시되는 특이한 북페어도 있다. 아울러 바벨탑의 회장이 보는 사람을 제압할 것 같은 시카고 북 엑스포, 전시장 한편에 건공들의 행사와 수공예품 시장이 열려 혼란에 가까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북페어, 미국 내에서 스페인어를 실질적인 공식어로 사용하라거나 쿠바 출신들의 다양한 문학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치의 장이 되는 마이애미 북페어, 독자들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앙굴렘의 일화’ 북페어도 있다.

학술세미나 등 다채로운 볼거리 곁들여

그뿐만이 아니다. 런던의 북페어는 예약된 문학 출판사와 출판 대행사 관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성 북페어에 가깝고, 파리의 고서적 북페어는 유별난 서적 소장자나 애호가들을 위해 열려 있다. 그곳에서는 보르헤스가 빅토리아 오캄포에게 직접 헌사한 친필이

담긴 《픽션들》의 초판본을 8천 달러에 구입할 수도 있어 나름의 매력을 지닌다.

세상에는 서가에 책을 꽂아 놓고 흡족한 미소로 쳐다보는 독자가 있는 반면, 서점에서 하

루 한 시간 동안 다리품을 팔며 책장을 넘기는 독자도 있다. 다양한 독자가 있기에 다양한 북페어가 있고, 다양한 북페어가 있기에 다양한 독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만큼은 자명하다.

필자가 늘 찾았고, 지금도 찾는 곳은 11월 경에 열리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국제 북페어>(11월 24일~12월 3일)다. 언젠가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이곳 역시 여느 북페어처럼 각국의 신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데다 특별 할인가격에 내놓는 한편, 작가나 비평가들이 참석하는 학술 세미나와 문화예술 행사 등을 비롯해서 다채로운 볼거리까지 곁들여진다. 필자는 그 기간 동안 친구 집에 기거하며 해묵은 감상을 안주 삼아 데킬라에 젖기도 하고, 아침에는 혼잡한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구경하거나 상대적으로 조용한 근처의 서점으로 나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서가에 꽂힌 책을 하나둘씩 점검한다. 한 열흘 동안 하루 6시간 정도만 할애해도 향후 1년 분량에 해당하는 번역 텍스트를 너끈히 구할 수 있으니 더이상 좋을 수 있겠는가.

한번쯤은 겪을 만한 문화적 충격

해마다 10월이면 우리 출판계가 술렁인다.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부흐메세(Frankfurter Buchmesse)>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미국의 테러 참사로 조금은 유동적인 기류가 감지되기도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약 4백여 명의 출판 관련 종사자들이 그곳을 다녀왔다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지켜보며 일각에선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구해 왔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국제 북페어는 우리 책을 거의 내놓지 않는(아니 번역물이 많지 않은 실정에서 ‘내놓지 못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리라) 국내 출판사의 처지에선 외국의 신간 사냥이나 현지 계약을 겨냥한 기획성 나들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출판사 직원들의 노력과 공로를 달래는(?) 유행성 나들이(그 이면에는 빈손으로 돌아와선 안된다는 영세 출판사나 편집자들의 보이지 않는 초조감이 도사리고 있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출판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국제 북페어를 기웃거린다는 것 자체가 ‘한번쯤은 겪을 만한 문화적 충격’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덧붙이자면 <프랑크푸르트 부흐메세>를 전후해서 스페인에는 5월의 도서전과 달리 거의 출판업 전문가나 종사자들만 참가하는 <마드리드 북페어>(www.liber@ifema.es, 10월 3일~10월 6일)와 주로 중남미 작가 및 유럽의 젊은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베로아메리카 문학 살롱전>(www.literastur.com, 10월 23일~10월 27일, 칠레 작가 루이스 세플레다가 위원장이다)도 있으니 기회를 빌어 스페인의 향취에도 흠뻑 젖어 보길 권한다. 혹시 우연히 눈에 띄어 집어든 책이 나중에 황금이 돼 돌아올 수 있는 미다스의 여행으로 남을지 누가 알겠는가? ■